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집중해 주시겠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것들을 좀 적으셨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알아내실 것입니다.

이번 주의 큰 주제에(big topic)
포커스를 맞출 생각입니다.

매주 큰 주제를 선택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선택된 주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니다.
제가 오늘밤은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합니다.
상상력 준비되었나요?

여러분 지금 당장 상상해 보세요.
오늘밤 이후로 우리 모두가 납치되었습니다.

행복한 상상이죠? 잘 오신 것 같으세요?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납치되어서
화물차 안에 묶여있습니다.

화물차 안에 묶여있을 때,
기억을 잃게 하는 물질이

우리에게 투여되었습니다.
좋은 스토리이죠?

그리고 우리가 깨어난 곳은 창문이 없는 방입니다.
그리고 문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길, ‘밖에 뭐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모두 체면이 있어 초면인 사람에게
말하기가 꺼려집니다.

이중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자원자가 뺨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네. 헤더

헤더는 우리의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헤더가 생각해 보니,

헤더는 지적인 사람이고 머리를 잘 사용합니다
헤더가 혼자 생각하길,

'내가 말을 시작하자. 지금 이 사면의 벽밖에는
엄청나게 큰 핑크 코끼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괜찮죠?

네

네. 정말로 맞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세요.
네.

그렇고 말고요. 엄청나게 큰 핑크색 코끼리들요.

그럼, 누가 헤더의 주장에 동의하세요? 있나요?
누가 밖에 큰 핑크색 코끼리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한명, 두명! 두명이 동의하네요.

네. 그리고,

이쯤 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사람은 앤디입니다.

앤디가 잘 듣고 있었습니다.

앤디는 지적인 면은
좀 없으신 분이십니다.

대신 조금 감정적인 사람이죠.
앤디는 그런 남자입니다.

감정에 좀더 끌리죠.
앤디는 떨림을 느끼고

생각하길, '아니야. 이건 거대한
핑크색 코끼리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데,

이 사면의 벽밖에는
작은 녹색 원숭이들이 있을 꺼야.' 어때요?

네. 원숭이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숭이들이요.

확신을 가지세요. 앤디, 작은 녹색 원숭이들이죠?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앤디의 말에 동의하시는 분?
앤디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네요.

네. 이쯤 에서 또 어떤 사람이
듣고 있으면서 생각하길,

'아니야. 그런게 절대로 아니라고.' 개리입니다.
게리는 헤더가 하는 말도 들어보고

앤디의 말도 들어보고 말을 시작합니다.
말도 안돼요.

진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면의 벽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깐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든 견딜 수 있도록

아무거나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개리?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게리의 말에 동의하세요? 한 분.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네요.

그렇지만 두 세 명은 게리를 따르네요.

그럼, 이쯤 에서 ‘누가 맞나요?’하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는 알 수 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방에 갇혀 있고

밖의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이 중에 한 명만 맞거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저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고 하고

그냥 우리대로 살아가도 되죠.

그런데 잠시 가정해 봅시다.

서로 말하고 있는 와중,

천장으로부터 소음이 들리는 것을 눈치했습니다.

그래서 위를 올려다보니, 천장이 조금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탁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밖에서 왔고, 뭐가 있는 지

말해 주려고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뭐가 바뀔까요? 당연히 그럴죠.

사실을 알게되는 거죠. 그럴죠? 당연히 그럴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밖으로부터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우월한 위치에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천재가 아니라도 이 일화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해서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추측 게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추측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좀 더 감정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문과 창이 없는 방에

갇혀있는 것 같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과 접촉하신다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추측에서 계시로요.

굉장한 소식은 이 책의 첫 페이지에,
요한복음의 바로 첫 페이지에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천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서를 들으시고, 저와 함께
첫 페이지를 찾으신다면,

찾으신 첫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코스 전체에서
가장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구절입니다.

첫 페이지, 1절,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길,
‘잠깐만!’

이 책의 저자가 분명히 이 첫 문장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자가 직접적으로 태초에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동시에 하나님이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길, ‘잠깐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확실히 모순이 있을 거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몇 분 동안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자는 말씀이라 불리는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편적인 영어 단어에서 쉽게 알 수 있죠.

몇 몇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ring’을 봅시다. 무슨 의미가 있죠?

말씀해 보시겠어요? ‘ring’의 뜻이 무엇입니까?

“손에 끼는 것”

손에 끼는 것 저는 이러한 질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대답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ring’ 은 손에 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문 초인종이요”

초인종,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원이요.”

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권투을 하는 곳이요.”

네. 권투장,

권투장일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좋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match’를 봅시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match’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축구요.”

축구. 네.

“불꽃이요.”

조명, 밝은 조명, 다른 의미는요?

“커플들이요.”

커플들. 우아. 한 쌍,

같은 단어, 같은 철자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입니다. ‘bow’를 들어봅시다.

‘bow’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무슨 뜻일까요?

“보트요.”

보트! 보트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절하는 것이요.”

절하는 것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밤

여러분에게 제 앞에서 절하세요.

하시겠어요?

여러분께서는 ‘천만에요!’ 하시겠죠.

제 생각에는 핵심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같은 철자의 단어가

다른 뜻으로 의미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뜻이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첫 두 구절을
이해하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할 때,

그는 말씀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했을 때, 이 말씀은 완벽히,

완전히 신성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약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러나, 신성의 측면에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성하신 것처럼,
완전히 완벽히 신성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선이 그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알겠죠? 여기에 선이 있습니다.
선의 이쪽에 있으신 분들은

항상 존재하여 왔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은
항상 존재하여 왔습니다. 영원하신 분들입니다.

반면, 이 선의 저쪽 편에 있으신 분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창조된 분들입니다. 그 말은 즉,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시점이 있다는 것 입니다.

이해되셨죠? 선의 이쪽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원하십니다. 항상 존재하여 오셨죠.

선의 저쪽에 있으신 분들은
창조된 분들입니다.

그럼 이 복음서의 첫 두 구절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선의 이쪽, 이 선에서 영원한 쪽에는

두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인물.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시면,
영원한 쪽에는 성령님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이 굉장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 이 신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 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스타워즈에 나오는
비인격적인 세력과 같거나
하늘에 사는 외로운 개인과 같은 분이 아니라
신성한 가족과 같다고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가족에 세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이 가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가족들과
같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불끈 해서 싸워서
각자의 길로 헤어지는 보통 가족 말이에요.
이 가족은 완벽한 가족입니다. 이 세 구성원,
세 신성한 구성원은 서로 뚜렷이 다르지만
분리되지 않고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은
뚜렷이 다르지만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함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의 책자를 보세요. 몇 장을 넘기면
도움이 될만한 그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오직 하나의 왕관이 있습니다.
3개의 왕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관은 오직 한 개만 있습니다.
이 왕관이 창조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왕관 안에 세 구성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혹은 다른 이름으로는 아들, 그리고
성령님.
신성한 가족의 세 구성원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그전에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말씀이
이 신성한 가족의 구성원이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음서를 꺼내어,
3절-5절을 봐 주세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신성한 가족의 영원한 구성원인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심에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창조된 뒤에 혼자 남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빛이 계속해서 어둠에 비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떠 받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

‘이제 뭐하지? 그냥 다리 뻗고 텔레비전이나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유지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말씀의 정체성(Identity)은

태초에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현재까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큰 질문이 있습니다.
6절-14절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2천년 전에 말씀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입니다.

그럼, 찾아봅시다.
6절을 같이 봅시다.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한
이야기 기억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려주시길 원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그럼, 그가 이 세상에 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0절에서 13절을 봅시다.
이것이 말씀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는 그를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그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잠깐만, 내가 한번 종합해 보자.'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14절을 봅시다.
이 구절은 훌륭하게 아주 훌륭하게

제가 말씀 드린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약 2천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책자에 있는 도형을 보시면, 말씀으로부터
인간의 역사로 그어진 선을 보실 수 있죠?

이 영원한 가족의 신성한 세분 중
한 분이 2,000년 전에

먼 은하계가 아닌 바로 이곳에 오셔서
사셨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시기와 장소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실제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이 세상에 온
영원한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이상한 이름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말씀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요.

자녀를 가지신다고 해도,
딸이건 아들이건,

이 이름을 고려하지 않으시겠죠?
생각해 봅시다. 말씀, 네. 바로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제가 공중에다 손을 흔들 수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신성한 가족의 신성한
대변인이기에 말씀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보게 된다면,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 신지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떠한 놀랍고,

크고, 대단한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제는 수수께끼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접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로 와서

보고 들으면 확실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굉장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 책을
꺼내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단순히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진실을 듣는 것입니다.
수수께끼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 전달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 입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더 알아보고,
오늘 밤은 이것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창조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의미가 있나요? 놀랍게도
우리가 여기에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께서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셔서, 혹은 내일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시면,
어떤 반응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시면,
여러분이 여기에 우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삶을 유지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
대단하죠, 그렇죠?

창조주의 대단한 소식은
우리가 우연히 존재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다는
뜻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삶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삶은 대어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자비롭게 주셨지만

이 삶은 우리가 그냥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께서 주신 삶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왔습니까?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어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날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흥을 깨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시면서,
'저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군, 그것을 멈춰야겠다.

하늘의 탐지기가 있고 저기에
즐거움과 재미가 있구나, 방해해야겠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고자 하신다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아마도, 제가 여러분의
식욕을 돋울 수 있도록

생각하시게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별로 모여서서
이 생각들을 몇 분 동안 나누고

잠시 후에 다시 모입니다.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